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한 연구¹⁾

A Study on the Identity of a Christian University and College in Korea

조 용 훈(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

I. 서론

II.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와 그 원인

1. 위기의 징후들
2. 위기의 원인들
 - 1) 세속적 세계관(계몽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 2) 정부의 통제와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 3) 대학의 거대화
 - 4) 잘못된 신학에 의한 신앙과 학문 관계의 왜곡

III.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구성 요소와 유지를 위한 방안

1.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2. 기독교적 교육이념의 구현
 - 1) 기독교 교양교육의 중요성
 - 2) 대학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
 - 3) 기독교대학 내에서 기독교학과(신학과)의 역할
3. 기독교적 대학문화의 형성
4. 대학구성원의 반성과 책임
 - 1) 건강한 대학생
 - 2)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수
 - 3) 전문적이고 봉사하는 행정직원
5. 대학과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
 - 1)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교회와의 상관성
 - 2) 교목실의 역할과 중요성
 - 3)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IV. 결론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of a Christian University and
College in Korea**

Jo, Yong-Hun

What makes a university or college Christian? What differentiates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from their secular counterparts? In general,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are erected by a Christian denomination, have a chapel and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and offer classes in the Christian liberal arts. But more important thing than these external features are the internal aspects or the content of the related higher education.

In this article I have posited four elements pertaining to the identity of a Christian university and college:

Firstly, the goals of higher education and the Christian concept of higher education are reinterpreted and contextualized in the new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Further, the Christian concept of higher education has to be embodied and embedded in the official curriculum, and can not merely be rhetoric in the institution's statute or mission statement.

Secondly, the institution'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have to share a common vis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commit themselves to it. Consequently, their calling should be reviewed and renewed and their efforts for integrating the faith and learning encouraged.

Thirdly, there needs to be fostered a Christian atmosphere and ethos within the campus culture, because education is exercised not only in the classroom and in the approved curriculum but Christian formation also occurs outside the classroom. Therefore, the institution needs to promote related extra curricular student activities and informal meetings and discuss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Lastly, universities and churches need to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nd linkages. The separ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from the church results in an alienation from their spiritual roots. The churches can also help the university and college by financially sponsoring and sending Christian students to th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Key words: 기독교대학, 기독교교육이념, 대학구성원, 기독교적 대학문화

I. 서론

대학은 한 나라의 지성을 대표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찰스 말릭(Ch. Malik)은 대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¹⁾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발족되었던 '개혁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협회'는 기독교대학의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만일 기독교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사회와 문화의 상층부는 전부 불신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학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역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정치인과 관리, 법관과 의사, 문학과 과학자들은 반신양적 자연주의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²⁾

현재 한국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기독교대학이 약 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모든 기독교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면서 설립되었지만, 계속해서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일반대학 가운데 '하나의 대학'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대학 정관에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고, 교목실을 통해 채플과 몇 개의 기독교 교양과목을 운영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교육과 행정, 문화 전반에서 일반대학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지금도 새로운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보다 기독교대학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미국에서는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³⁾ 이는 유명 사립대학들 대다수가 처음에는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교회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1) 조용훈: 이 논문은 2002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학위원회에서 주최한 기독교대학 논문현상 공모(제1회)에 제출하여 당선된 것으로 그 일부를 발췌하여 여기에 실는다.

2) Ch. H. Malik, 신정숙 역, 「대학의 위기: 기독교적 비판과 대안」(성경읽기사, 1988), 105.

3) 강영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16호(1992/10), 57.

세속화되고 말았다는 비판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런 비판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기독교대학들의 정체성 회복운동은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도움이 되고 있다.⁵⁾

미국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연구 활동에 비교해 볼 때, 아직 한국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들어 '한국기독교학생회'(IVF),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기독교학문학회' 그리고 '통합연구학회' 등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의 신학 배경과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국 교회와 신학계 전체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⁶⁾ 다행히 최근 들어 50여 개의 회원학교와 1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대학 교목회'에서 효과적인 학원선교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⁷⁾

4) W. C. Ringenberg, *The Christian College. A History of Protestant Higher Education in America*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84); G. M. Marsden and B. J. Longfield (ed), *The Secularization of the Academy* (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G.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J. T. Burchaell,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Eerdmans, 1998).

5) 많은 모범적 사례들을 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개를 들라면, 개혁교회 전통의 칼빈대학교, 복음주의 계열의 휘튼대학교, 침례교의 배일러대학교, 루터교의 세인트 올라프대학교, 메노파교단의 고센대학교, 감리교의 메시아대학교, 그리고 가톨릭의 노틀담대학교를 들 수 있겠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R. T. Huges and W. B. Adrian (ed),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97); R. Benne,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1).

6) 이원설, 『신앙과 학문』(IVP, 1991); 『기독교대학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전망』,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13호(1991/12); 『기독교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16호(1992/12) 『현대사회와 기독교대학』,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21호(1994/3); 양승훈, 『예수님이 주신다는 새로운 대학』(도서출판 CUP).

6) 이계준 편, 『기독교대학과 학원 선교』(전망사, 1997);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대학과 선교』창간호(2000).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 원인과 그 대책을 연구하는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에서는 기독교대학이 오늘날과 같은 정체성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겠다. 둘째 부분에서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이란 무엇이며 그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창학이념과 기독교적 교육이념의 구현, '기독교적' 대학문화의 창조, 대학구성원들(학생, 교수, 행정직원)의 반성과 책임, 그리고 대학과 교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네 가지 주제가 논의될 것이다.

II.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와 그 원인

1. 위기의 징후들

한국의 기독교대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크게 기여했다. 20세기초 민족의 독립과 근대 시민사회로의 발전에 필요한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해 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이 신설되면서 기독교대학들이 누렸던 독점적 위상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립대학들은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기독교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학생수를 늘리고 대학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의 현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먼저, 대학의 지성적 분위기가 반종교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지식인들 대다수가 신앙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일로서 더 이상 공공적인 교육영역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종교란 일종의 편견과 독단이어서 학문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과학(학문)이 종교의 권위를 대체해 버린 세속화 현상을 가장 뚜렷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

학이다.

둘째, 기독교대학의 학문적 수월성, 도덕적 탁월성 그리고 신앙적 열정이 사라짐과 동시에 기독교대학에 입학하는 기독교인 신입생 비율이 줄어 들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선택의 기준은 명문대학인가 아닌가 이지 기독교대학인가 일반대학인가가 아니다. 그 결과 초창기 기독교대학 대부분의 학생이 기독교인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대학 졸업생의 진로나 취업률을 보더라도 일반대학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기독교대학 내에서 기독교적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대학 초창기에 교회절기와 관련된 학사일정이 이제는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서 예배와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독교대학 생활의 중심이었던 채플은 주변화 되고 있다. 초창기에 거의 매일 드렸던 채플이 이제는 주 1회 정도로 제한되고 그것도 8학기 중에 4학기로 제한된 대학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플의 강제성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채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대학구성원 사이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⁸⁾

넷째, 대학 구성원들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이 약화되고 있다. 먼저, 기독교학생들의 선교적 학술적 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어 각종 기독교 동아리와 선교단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리고 초창기에 선교적 열정을 지녔던 선교사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학문연구만 관심하는 교수와 소명 없는 행정직원들이 들어오면서 대학의 선교적 비전도 식어지고 있다.

8) 1991년 숭실대 법학과에 입학했던 한 학생이 6학기 채플 중 4학기만 이수하여 졸업이 유보되자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1998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는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가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다.

2. 위기의 원인들

1) 세속적 세계관(계몽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지난 2세기 동안 기독교 학문활동에 대한 도전은 계몽주의 세계관에 의한 것이었다. 서유럽에 대학이 등장한 중세기만 하더라도 토마스적 전통에 따라 계시의 영역인 신앙과 이성의 영역인 학문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신앙과 학문 사이의 조화와 종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17세기 계몽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신앙과 학문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계몽주의자들은 지식이란 실험과 검증 가능한 경험에서 나오는 반면에 신앙이란 단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종교가 지식 탐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학문활동에서 종교는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학문에서 종교적 관점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러한 과학적 실증주의 학문 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하여 조지 마스덴(G. M. Marsden)은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⁹⁾ 첫째, 자연과학의 경험론적 연구방식을 다른 학문영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 곤란하다. 둘째, 학문적 신념이 반드시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사회적 평등과 같은 신념은 과학적 논증에서가 아니라 도덕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문에서 종교적 관점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근본적으로 실행 불가능한데, 이는 종교적 관점이 필연적으로 학문적 논의들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오늘날 대학에서 자연주의적 전제들에 기초한 학문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무비판적이다.

계몽주의적 학문방법론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최근에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으로서 포스트모

1) G. M. Marsden, 조호연 역, 『기독교적 학문 연구』 현대 학문 세계 (IVP, 2000), 49-51.

니즘은 예술과 건축의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그 영향이 철학과 종교, 사회, 그리고 문화 전체에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객관성, 과학적 지식의 가능성, 사고의 주체로서 개인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하면 합리, 과학, 객관성, 개인주의, 그리고 보편주의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공동체의 죽음과 소외를 가져온다. 그리고 진리의 확실성과 보편성에 대한 생각은 서양, 백인, 남성, 식민지배자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¹⁰⁾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적 학문방법론에 의해 궁지에 몰렸던 기독교대학을 돕는 측면이 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과 과학적 방법이 대학생들과 학문연구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은 교육영역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계몽주의에 의해 배제되었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학에 외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방법론에 있어서도 주관적 신념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¹¹⁾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식활동을 왜곡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인식과 이해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도이어베르트(H. Dooyeweerd)의 주장대로 모든 인식활동이란 궁극적으로 종교적 신념의 전제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¹²⁾

그러나 존 쿠퍼(J. W. Cooper)의 관찰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보다 더 위험스러운데, 이는 기독교대학이 합리주의라는 단순한 적 대신에 엄청나게 다양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상이한 종교들과 세계관들을

10)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2000), 21.

11) H. Fernhout, "포스트모더니즘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기독교교육", 『빛과 소금』(1996/11), 46.

12) 김영한, "21세기와 기독교 대학의 이념",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대학과 선교』창간호(2000), 85.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보다 더 교활하게도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대신에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상대화해 버리기 때문이다.¹³⁾

이문균 역시 비록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성에 기초한 자아관과 객관적인 지식에 기초한 세계상을 무너뜨리고, 제국주의적인 웅대한 이야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과학의 일방성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절대적 진리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나 표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은 권력의지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진리의 상대성을 넘어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진리가 존재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진리의 보편적 기준이나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자기 이해에 기초한 독특한 자기 이야기의 서술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전망한다.¹⁵⁾ 말하자면,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기독교대학의 생존 전략은 단지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3) J. W. Cooper, "개혁주의 학문과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도전",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21호(1994/3), 27.

14) 이문균, 위책, 85-86.

15) 이문균, 위책, 283.

2) 정부의 통제와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오늘날 기독교대학이 직면해있는 급격한 대학환경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교육의 시장화'다.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정부의 주도 아래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학설립이 자유화되고 2007년에는 교육시장을 완전 개방할 예정인데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줄어들면서 대학간의 생존경쟁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제 기독교대학에서도 기독교 교육이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경영이 중요해졌다. 리엔지니어링이나 다운사이징 같은 기업경영 용어가 대학에서도 일상화되었고, 대학총장의 능력은 발전기금모금 능력과 동일시되었다.

둘째, '소비자중심 교육체제'로 고등교육의 방향전환은 대학들로 하여금 교양교육보다는 실용교육에 치중하도록 만들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당장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나 영어, 고시과목에 관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취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문과목이나 기초과학들을 포함하는 교양교육이 크게 위축되게 되었다. 이제 대학교육은 과거의 교양교육으로부터 직업교육이나 기능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식교육이나 기능교육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대학의 교육이념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대학원중심 교육체제'로의 고등교육정책의 전환도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실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90년대 들어 대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대학교육은 소수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교육은 대학원중심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인격적 도덕적 신앙적 형성(formation)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인격지도보다도 자신의 학문적 연구업적에 관심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그리고 교수들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출처가 정부나 특정 기업에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주제도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두게 되어 인문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약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 획일적 기준으로 시행되는 ‘대학종합평가나 교육개혁평가’를 통한 정부의 대학통제도 기독교적 특수성을 추구하는 기독교대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 국민윤리와 군사교육을 강요받았다. 비록 형태와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는 각종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오늘날 대학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과거 대학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과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3) 대학의 거대화

대학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독교대학들은 대학운영을 위해 학생수를 늘리고 대학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심지어 신학대학들마저도 종합대학화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대학의 규모가 갑자기 커지고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종합대학들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학과를 개설하고 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의 차별화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학의 대형화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대학운영에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높다. 대학의 대형화가 곧 생존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신설 대학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대학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대형화야말로 생존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의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다운사이징까지도 심각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4) 잘못된 신학에 의한 신앙과 학문 관계의 왜곡

학문공동체로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다. 잘못된 신학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거나 무관심하게 만든다. 자유주의 신학전통은 신앙과 학문 사이의 긴장을 없애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반면에, 근본주의 신학전통은 둘 사이를 분리해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전자가 기독교대학을 '세속화' 시키는 과오를 범한다면, 후자는 기독교대학을 '교회화' 시키는 과오를 범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신학전통은 비록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윤리화하거나 공공적 교육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기독교 학문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독일의 관념주의나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학문의 보편성을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보다 강조한다. 이들은 기독교적 특수가치들을 보편적 도덕가치로 환원시킴으로써 기독교를 윤리화시킨다. 그 결과 기독교적 교육이념은 교양교육이나 도덕교육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이들은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적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신앙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일로서 학문활동의 장애요소라고 생각하여 종교를 대학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한편, 근본주의 신학전통은 인간 이성의 전적 타락만을 부각시킴으로서 대학에서의 학문활동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들은 기독교 진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기독교의 학문성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전공분야와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본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에는 채플참석이나 개인적 헌신을 강조하면서 대학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학문활동을 포함한 문화활동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기독교 학문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종교는 대학에서 주변화되고 만다.

III.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구성 요소와 회복 방안

1.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 나라에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있으며 대학에 재

학중인 학생들도 150여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는 대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학무용론' 이나 '대학 폐지론' 까지 나올 정도로 대학이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⁶⁾ 대학에 대한 비판의 주된 내용은 국민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대학에 투하하는 에너지에 비해 생산해 내는 긍정적 결과물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열화된 대학이 기존의 신분적 사회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제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사회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기독교대학은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비판적 분위기에서도 기독교대학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기독교대학은 과연 위기에 빠진 대학사회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우리사회에 다시금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태복음 5, 13)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곧 기독교적 정체성에 대한 요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기독교대학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대학을 설립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교회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대학을 정의할 때 설립자가 기독교인 개인이나 교회 혹은 교단이고, 대학 정관에 '기독교 정신' 이란 교육이념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목실을 두어 채플이나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상의 요소들을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미국 기독교대학의 세속화 과정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했던 제임스 버첼(J. T.

16) 김동훈,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 1999); 강준만, 『지식인과 대학』(개마고원, 2002).

Burchaell)은 기독교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속화의 진상이 그들이 내세우는 ‘창학이념의 구현’,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혹은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홍보용 팜프렛의 선전문구들로 인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 기초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¹⁷⁾

그렇다면 참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에서는 기독교대학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학문의 제 분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임을 인식하여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이라고 정의한다.¹⁸⁾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단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연구와 교육은 물론 대학행정과 대학문화 전체가 기독교 분위기로 가득 차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독교 인재들이 배출될 때 비로소 참 기독교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단지 외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내적이고 실질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적 교육이념,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는 교과과정, 그리고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헌신적인 대학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면학분위기와 기독교적 대학문화 전체가 포함된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대학을 교회나 신학대학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둘 다 ‘신앙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자가 ‘예배공동체’라면 후자는 ‘학문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이나 소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은 목회자 양성을 위해 목회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과목만을 가르치는 신학대학과도 다르게 모

17) J. T. Burchaell,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Eerdmans, 1998), 849-850.

18) www.view.edu, “기독교대학이란?”

든 학문분야를 연구하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가르쳐야만 한다.

2. 기독교적 교육이념의 구현

1) 기독교 교양교육의 중요성

기독교대학을 일반대학으로부터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의 교육이념이다. 대학의 교육이념은 대학의 존재이유와 교육목적, 그리고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의 생명이다. 교육이념이 분명하지 못할 때 대학은 방향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이념은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고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일반대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용교육과 직업교육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M. L. King, Jr.)의 지적대로 교육의 참된 목표는 지식에 성품을 추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도덕성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¹⁹⁾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정보나 지식의 부족에서가 아니라 도덕성과 인격의 결여에서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지식인이나 기능인이 아니라 인격인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인격이란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적 인격' 과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 그리고 자신과 이웃, 사회에 대해 '책임적인 인격' 을 가리킨다.²⁰⁾

아더 홀즈(A. Holmes)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교양교육이 공헌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²¹⁾ 첫째, 광범위한 학습이 지식을

19) W. H. Willimon and Th. H. Naylor, *The Abandoned Generation. Rethinking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5), 55.

20) A. Holmes, 박진경 역, 『기독교대학의 이념』(도서출판 CUP, 1992), 38-41.

21) A. Holmes, *Building the Christian Academy* (Grand Rapids: Eerdmans, 2001), 109.

풍부하게 하고 경험을 다양하게 한다. 둘째, 말하고 분석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들은 어떤 종류의 직업에도 유용해서 평생직업에 도움이 된다. 셋째, 역사나 철학은 개별적 경험과 관련되며, 세계관의 전제들을 드러내 준다. 넷째, 도덕적 가치들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참여는 양심을 계발하며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미적 경험들은 상상력을 풍요롭게 한다. 여섯째, 그 결과 지적 문화적 도덕적 영적 차원을 포함하는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기독교 교양교육이야말로 오늘날 대학교육이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직업준비를 위한 실용교육인 셈이다.

한편, 기독교 교양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Weltanschauung)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²²⁾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대학은 '세계관의 슈퍼마켓'이나 '세계관의 카니발'처럼 다양한 세계관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학생들은 커다란 혼란에 직면하여 있다.²³⁾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이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유, 나아가 사유와 삶의 실천,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다 깊은 희망과 목적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이 인생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을 갖게 만들고 자신들이 전공하는 모든 분야들 근처에 놓여있는 가치관과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독교적 시각에서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²⁴⁾

2) 대학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

기독교적 교육이념은 교과과정(curriculum)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한

22) 세계관 개념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A. Holmes,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앰마오, 1994);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록』(도서출판 CUP, 1998), 10-40; J. W. Sire, 김현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IVP, 1995), 22-23.

23) H. Fernhout, 위책, 46.

24) A. Holmes,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앰마오, 1994), 13-16.

다²⁵⁾ 아무리 기독교정신을 강조해도 그것을 교과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는 한 하나의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기독교대학의 교과과정 가운데 기독교적 교육이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양필수로서 대학채플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선택으로서 기독교과목들이다. 전자가 교회당과 예배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강의실과 수업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전자가 선포적 기능을 한다면 후자는 교육적 기능을 하고, 전자가 기독교적 인격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기독교적 학문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²⁶⁾

일반적으로 채플(chapel)이란 교회의 예배당 이외의 장소인 대학, 병원, 군대 등의 부설 예배실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킨다. 대학채플은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학채플은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에서 교양필수과목의 하나로서 많게는 8학기, 적게는 4학기까지 이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출석과 결석만 파악할 뿐 성적평가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채플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인 학생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는 채플이 너무 종교적이라는 이유에서 비판적인 반면에 후자는 너무 교양강좌 같다는 이유에서 비판적이다.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채플 참여가 의무이긴 하지만,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적 제의나 강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청된다.

대학채플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선, 채플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채플의 강제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기독교적 인간 형성에 목표를

25) 교과과정'이란 학교의 교육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되어진 일체의 활동으로서 여기에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장(場),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26) 강영선,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한 선교",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대학과 선교」 창간호(2000), 34..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²⁷⁾ 이를 위해 대학채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예배중심적'이 아니라 '교육중심적'으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선교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²⁸⁾ 영상세대의 문화에 맞도록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형식과는 다른 다양한 예배형식을 시도하고, 학생들만의 채플보다는 교수가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에서 학생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도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는 함께 생활하는 동질적 공동체로서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채플이나 종교적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그 외에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채플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학원 학생의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에서 그들에 대한 목회적 배려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독교대학에는 다양한 기독교 교양선택과목들을 개설하여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서이해', '현대인과 성경', '현대사회와 기독교', '기독교이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문학', '기독교와 과학' 등 다양한 이름의 과목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독교 교양과목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강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고, 외래 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는 외에도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즉, 기독교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임을 염두에 두어서 강의내용이 일종의 '신학입문' 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복음전도나 개종의 방편으로 강의를 활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객관적 학문성이 약화될 경우 자칫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때문이다.²⁹⁾

27) 박용우, "기독교 채플을 통한 선교",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위책, 65.

28) 박용우, 위책, 65-67.

29) 강영선, 위책, 36-37.

3) 기독교대학 내에서 기독교학과(신학과)의 역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독교학과(신학과)의 존재가 필요하다. 교목실을 학원선교의 중심축이라 한다면 기독교학과(신학과)는 기독교 지성 계발이나 신앙과 학문 통합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학과(신학과)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그것을 늘 새롭게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신학을 제시하고 교육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신앙경험과 교단적 차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개별 학문을 통합시키려고 힘쓰는 교수들에게 신학적 토대에 대한 지식도 전달해야 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단순히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학문이 전제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신학적 검토와 비판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일을 돕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학문 통합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위해 신앙과 학문 통합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러한 성과물들이 출판되고, 그러한 적극적인 분위기가 새로 부임하는 신임교수나 행정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적 대학문화의 형성

기독교대학을 일반대학으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또 다른 요소는 기독교적 대학문화, 즉 기독교적 대학 분위기이다. 대학생활에서 기독교적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란 강의실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환경의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별히 인격교육은 지식교육과는 달리 공식적인 교과과정 이외의 비공식적인 교과과정이나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

오늘날 대학문화는 개인주의의 확산, 물질주의 가치관, 그리고 쾌락주의의 도덕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비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학술문화가 사라지고 그 대신 먹고 노는 문화가 퍼져가고 있다. 다전공 혹은 복수전공이란 제도 아래 졸업이수학점을 줄인 결과 학생들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체육대회, 학과별 MT, 개강 및 종강 파티,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 온갖 종류의 행사들도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재미있는 강의만을 추구하면서 쉽게 학점을 따려고 하는 학생의 태도나 학점 인플레이 현상도 학술문화를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축제를 보게 되면 먹자판, 놀자판, 노래판, 술판의 저질 세속문화로 변질되어서 기독교적 대학분위기를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건강한 기독교 대학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대학의 우선적 목표는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대학생 대부분은 외국의 대학생에 비해 학문활동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학생들의 학문활동이란 것도 기껏해야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컴퓨터, 영어, 고시공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대학이란 진리 탐구의 전당이기에 앞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수단이라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학이란 단지 학교간판이나 보다 나은 직장과 배우자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수적이다.

둘째, 학사력(曆)과 교회절기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절기들은 기독교 전통이 종합되어 나타난 문화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에서 학사력은 학사력대로, 기독교 절기는 절기대로 서로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순절 기간에 체육대회나 축제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기독교적 대학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의 중

요한 행사들인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행사 등을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런 행사들에 대한 참여율도 낮아지고 그 의미도 점점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일반대학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과감한 변혁을 통해 대학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하겠다.

셋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활동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은 대학 안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다. 수도원운동에서는 노동을 기도나 학문활동과 동일하게 중요한 하루의 일과로 간주했으며, 종교개혁자들은 노동을 소명으로 신학화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시설, 소년소녀가장의 학습지도, 보육원방문, 복지관봉사활동 등을 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를 돕는 일을 통해서 지구화 시대의 삶의 방식들을 배우게 하며,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지구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지구적 시민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넷째, 각종 동아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와 더불어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의 고통이 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해결책을 술이나 컴퓨터 게임에서 찾는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격적 만남을 가능케 하며, 관심하는 분야의 학문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게 하는 좋은 기회다. 가능하다면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독교 동아리들의 활성화는 건강한 기독교 대학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4. 대학구성원의 반성과 책임

1) 건강한 대학생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대학구성원의 소명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다. 모든 조직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에 앞서 사람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이념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동조하는 학생이나, 그러한 교육이념에 대한 소명감으로 헌신하는 교수와 행정직원이 없다면 아무런 교육적 효과도 없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육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을 전인적 인격체로 형성시켜 장차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길러내는 데 있다. 아더 홈즈(A. Holmes)는 기독교대학이 목표로 하는 건강한 대학생의 조건으로서 영적 덕목들(소명과 헌신), 도덕적 덕목들(사랑과 정의감), 지적 덕목들(폭넓은 지식과 역사의식, 그리고 대화능력 등), 책임적 행동들(양심, 인내, 참여 등), 그리고 자각적 특질(겸손과 배우려는 자세)을 언급한다.³⁰⁾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목표는 피교육자인 학생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도달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기독교 전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휘튼(Wheaton) 대학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복음적 열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전반에 기독교적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³¹⁾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습목표가 분명하고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동조하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독교대학들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초창기에는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만 대학의 문을

30)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112-114.

31) R. Benne,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1), 150.

열어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신앙적 조건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줄어들게 되면 대학의 신입생 선별권은 아예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과연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가 가능할지 극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 학생들이 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대학의 교육방향과 강의내용은 물론 대학문화 전체가 세속화의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건강한 인격을 지닌 신입생 유치가 중요해 진다. 지금과 같은 수능성적에 의한 획일적인 선발 방법이 아니라 특별전형을 통한 다양한 선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목회자추천학생 선발비율을 높이거나 해외선교사의 자녀나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2)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적 요소는 교수들이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학문적 도덕적 신앙적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수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하면서 연구업적을 중시함에 따라서 교수들도 학문적 업적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라 개인의 이력과 경력을 대학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자기 전공에만 갇혀 있는 외톨수가 늘어나고, 대학이 거대화되면서 학생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일정한 자격교육이 없이 오직 박사 학위와 연구업적 만으로 강단에 서게 됨으로써 교육과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신앙 깊은 교수들조차도 처음에 가졌던 소명감이 약화되면서 기독교 교육이념의 구현이나 기독교 대학문화 형성에 무관심해지고, 마침내는 대학의 체플에 대해서마저도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교수사회의 붕괴 원인을 양승훈은 오늘의 학문현실에서 찾고 있다.³²⁾

첫째, 학문이 인간 완성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 둘째, 지식의 파편화로 말미암아 통합적 지식 대신에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에 권위가 부여된다. 셋째, 연구의 대형화로 말미암아 연구자의 신분이 자유인에서 고용인으로 변했으며 더불어 책임도 사라졌다. 넷째, 절대 진리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대신 상대주의가 등장했다. 다섯째, 학문의 해방적 기능이 왜곡되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로 고통받았다. 여섯째, 학문이 진리 추구 대신에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현실을 인식하여 학교당국과 이사회는 보다 신중하게 교수를 선발하고 임용해야 한다. 교수의 일차적 의무는 진리탐구와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양질의 강의와 우수한 연구 능력을 갖춘 교수를 임용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교회출석확인서나 세례교인증명서와 같은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의 창학이념과 교육이념을 명확히 제시한 후 그것에 동의하는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독교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능력과 의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이 빠지게 되는 독선이나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동료교수들과 원만한 인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품인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대학 교수는 학생들의 인격형성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정체성도 지녀야 한다.

한편, 기독교대학에서 학문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즉 교수들의 '연구 및 가르침의 자유'와 학생들의 '배움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교수와 학생은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어서 어

32) 양승훈, "현대 학문정신 비판",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13호(1991/12), 142-151.

떠난 정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과거 한국의 대학들이 학문의 자유를 위해 권위주의적 정치권력과 갈등했다면, 오늘날 사립대학에서는 설립재단과의 갈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비록 교회에 의해 선교적 목적에 의해 세워졌다 하더라도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대학은 새로운 생각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교단이나 교회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요하게 되면 대학의 반발을 사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대학에 대한 교회의 감독과 통제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학문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더 홈즈(A. Holmes)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책임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투신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책임이다.³³⁾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이기적 목적이나 자신의 편협한 사고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통합하는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결국 학문의 자유란 하나님 안에서의 제한적 자유다.

5. 대학과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

1)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교회와의 상관성

기독교대학을 일반대학과 구분시켜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의 관련성이다. 모든 기독교대학은 교회적 배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여전히 기독교 재단이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이념도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한다.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

33) A. Holmes, 위책, 79.

들, 특히 교수와 행정직원은 전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에 속해 있다. 따라서 대학과 교회 사이의 관계 여부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학과 교회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학이 교회를 후원자로 보기보다는 성가신 간섭자나 제거되어야 할 감시자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은 대학과 교회 양자 모두에게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교회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한국교회 신앙이 지니고 있는 반지성적태도를 언급할 수 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란 지성과 무관하며,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반기독교 문화의 전도자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 부모조차도 기독교대학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기꺼이 기독교대학에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만 그들이 교육받는 대학의 선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교회는 대학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대학으로 하여금 교회와 기독교 전통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비합리적 강제를 하려고 할 때 대학과 교회의 관계는 악화되고 만다.

기독교대학과 교회의 관계가 멀어지는 또 다른 책임은 대학 자체에 있다. 오늘날 기독교대학들은 학문적 수월성과 도덕적 탁월성 면에서 일반 대학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들은 교회나 교단에 대해서보다는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체인 학회에 대해 더 충성심을 발휘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설립교단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회의 관계가 밀접해져야 한다. 이제준의 주장대로 대학이 교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동역자를 상실하는 것이고, 교회가 대학을 선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대학을 완전히 세속문화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³⁴⁾ 이를 위해 우선, 대학과 교회는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다른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이 학문연구를 통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교회는 설교와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낸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교회의 도그마(dogma)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독교적 원리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전자는 도그마로 교육을 희생시키는 반면에 후자는 주소 없는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³⁵⁾

둘째, 대학과 교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독교대학들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수를 늘리거나 일반 기업체나 지역사회에 의존하게 된다. 그럴수록 교회의 영향력보다는 재정적 기여를 하는 일반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교회 청년들을 기독교대학에 보냄으로써 기독교대학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부모들과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대학은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목회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나 공간들을 지역교회를 위해 개방함으로써 지역교회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34) 이계준, "서론: 기독교 대학과 학원 선교", 이계준 편, 위책, 16.

35) 이계준, 위책, 14.

2) 교목실의 역할과 중요성

교목실은 학원복음화와 영적 지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학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중식은 기독교대학 교목의 역할을 5P로 설명하고 있다.³⁶⁾ 첫째, 교수(professor)로서 기독교 학문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능력이 있을 것. 둘째, 선지자(prophet)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을 것. 셋째, 제사장(priest)으로서 각종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회나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하나님과 대학 구성원 사이의 다리를 놓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 넷째, 정책 입안자(policy maker)로서 대학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일에 참여해서 기독교정신을 구현할 것. 다섯째, 목회상담자(pastoral counsellor)로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할 것. 은준관은 기독교대학 교목의 직무를 예언자적 기능(설교와 가르치는 일), 제사장적 기능(상담과 치유) 그리고 왕권적 기능(행정과 치리)으로 요약하고 있다.³⁷⁾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대학교 교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교회와 대학의 연결을 위한 역할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교목은 채플을 인도하고 성경공부를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은 물론 대학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학문적 대화나 토론이 가능할 정도의 학문적 식견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독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학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이러한 역할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목실장의 임명권이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목은 보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책임을 공유하게 되며, 총장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총장이 행정적

36) 한중식, "대학 교목의 자질과 역할", 이계준 편, 위책, 284-288.

37) 은준관, "학원 선교 신학", 이계준 편, 위책, 83.

편의를 위해 교목의 역할을 제사장적 기능으로만 제한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목(실)의 위상과 임명절차는 보다 신중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이사회와 역할과 중요성

이사회는 대학의 창학이념의 수호자인 동시에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방향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기관이다. 이사회는 대학총장을 선임하는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교수나 행정직원의 임용, 대학재산의 관리,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통해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그 막중한 사명을 망각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학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잡음들, 독단적 학교경영, 그리고 교수임용 과정에서 비리들은 기독교대학의 도덕적 수월성에 큰 타격을 입힌다. 그리고 교육철학과 교육문제에 대한 이사들의 비전문성도 대학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단은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기구가 아닌데다가 그 조직의 임원이 매년 바뀌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교단은 대학운영에 대한 일을 이사회에 위임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만일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결국 '주인 없는 대학'이 되고 만다.³⁸⁾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의 이사직은 명예직이 아닌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 교수의 임용과 징계,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간혹 법정소송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이사직 이해는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이사회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

38) 박용우, 위책, 61.

기 위해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훌륭한 대학총장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대학총장은 대학 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능력 여하에 따라 대학의 발전은 물론 기독교적 정체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대학총장은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인격적 도덕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대학총장의 리더십을 후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대학구성원들, 예를 들면 교수나 행정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나 교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대학총장으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대학 밖에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대학과 지역교회를 상호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에 있어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적극 나서서 대학과 교단간, 대학과 지역교회간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6. 결론

위에서 우리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설립주체가 기독교인이거나 교회라고 해서, 그리고 교수와 행정직원이 모두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혹은 제도적으로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운영한다고 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외적 형식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 교육이념에 대한 시대적 해석, 그것을 공유하는 구성원의 헌신, 그리고 강의실과 강의실 밖의 대학의 일상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움직일 때 참다운 의미의 기독교대학이 가능해짐을 말했다.

이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회복과 재정립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

기 위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구성원인 학생과 교수의 소명과 헌신이 중요하다. 셋째, 기독교교육은 단순한 지식교육이나 기능교육이 아니라 인격교육이기 때문에 강의실 바깥, 그리고 비공식적인 교과과정을 포함하는 대학문화 전반의 기독교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과 교회의 상호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이념은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 나라의 기독교대학의 현실은 이러한 이념과 너무 멀리 떠나 있다. 그래서 세속화되어가는 기독교대학을 변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설대학 또한 역사가 지나면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이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은 정체성의 확인은 그러한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조용훈 교수는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

독일 Bonn대학 신학박사(기독교윤리전공)

〈기독교 환경윤리의 실천과제〉(대한기독교서회, 1997)

〈지구화 시대의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1999)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대한기독교서회, 2002)

Entwicklungspolitik und Kirche(Waxmann Verlag: Berlin, New York, 2000)

아내 서현실과 4학년인 조해인(딸)이 있음.

대덕장로교회 협동목사로 섬김